

## 반건양근을 이용한 오구쇄골 인대의 재건술

- 수술수기 -

최남홍, 곽호윤, 배상욱, 김우진  
을지의과대학 노원을지병원 정형외과

만성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의 치료로는 지금까지 쇄골 원위부 절제술, 역동적 근전이술, 쇄골 원위부 절제술 및 오구견봉 인대 전이술 등이 사용되었다. 오구쇄골 인대가 쇄골 원위부의 상하 불안정성을 막는 가장 중요한 구조로 밝혀지면서, 만성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의 치료로 이 인대의 재건이 중요시 되고 있다. 사용되는 재료들로는 오구견봉 인대, 장수장근, 제 5족지 신전근, Dacron tape이 있다. 저자들은 1999년 3월부터 만성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의 치료로 반건양근을 이용하여 오구쇄골 인대를 재건하고 있으며, 수술적 수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반건양근의 인대를 박리하여 인대의 양측 말단에 비흡수 봉합사로 whipstich를 한다. 견봉쇄골 관절에서 내측 약 2 cm의 원위 쇄골에 3.2 mm의 천공을 하고, 오구돌기의 정 중앙에 양피질적 천공을 한다. 와서 와 족근과 나사를 삽입하여 견봉쇄골 관절의 정복을 유지한다. 견봉쇄골 관절에서 약 3 cm의 쇄골에 6 mm의 천공을 한다. 오구돌기의 내외측 근막을 박리하고, 준비된 반건양근의 인대를 족근과 나사의 내측에 있는 쇄골의 구멍을 통해 쇄골의 상부에서 하부로 통과한 후 오구돌기의 내측에서 하부를 지나 외측으로 통과시켜 쇄골의 상부로 견인한다. 비흡수성 봉합사로 반건양근 인대의 근위부와 원위부를 봉합하여 인대를 쇄골에서 고정한다. 그 후 족근과 나사를 한바퀴 더 삽입하여 이식인대를 보호하게 한다.